



지독한 홈경기 부진에도 무등경기장은 늘 팬들로 가득하다. 안방에서 신명나는 응원을 하고 싶은 게 6월을 맞은 KIA팬들의 바람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홈팬들은 웃고 싶다

선수들 안방에만 오면 경기력 '뚝'

4할대도 못미치는 승률에 팬들 울상

분위기 업, 승률 높여야 만원 관중 기대

‘호랑이 군단’의 안방 징크스에 홈팬들은 울고 싶다. KIA는 지난 5월 1일 두산과의 잠실경기까지 개막 후 10차례의 원정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며 100%의 원정 승률을 기록했다. 5월 방망이의 하락세와 함께 ‘원정 불패’의 기세가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KIA는 3일 현재 원정경기에서 14승1무6패(승률 0.700)의 성적을 보였다. 집 나가면 잘나가는 KIA지만 안방에서의 경기력은 똑 떨어진다. 지난 주말 홈팬들 앞에서 LG전 3연패를 당하면서 안 그래도 낮은 홈 승률은 0.375까지 내려앉았다. 홈에서 9번의 승리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친 선수들은 16번의 경기에서 고개를 숙인 채 덕아웃으로 들어갔다.

■ KIA 타이거즈 홈·원정 성적 (6월 3일 현재)

	승	무	패	평균 자책점	피안타	타율	득점
홈(25)	9	·	16	5.14	268	0.233	105
원정(21)	14	1	6	3.39	186	0.298	127
계	23	1	22	4.36	454	0.264	232

당연히 세부 성적도 ‘홈저(低) 원정고(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KIA의 원정경기 평균자책점은 3.39지만 홈에서의 평균자책점은 5.14까지 뛰어오른다. 사사구 개수도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난다. 홈 25경기에서 허용한 사사구는 131개(경기당 5.24개)지만 상대 진영에서 치른 21경기에서는 80개로 묶으며 경기당 평균 사사구는 3.80개로 떨어진다. 피안타도 홈 평균 10.72개 원정은 8.85개다. 타자들의 타격 컨디션도 홈과 원정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홈에서의 팀타율은 0.233에 불과하지만 원정 타율은 0.298까지 뛰어오른다. 홈타율은 홈과 원정에서 각각 0.345와 0.38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득점은 홈 4.2, 원정은 6.0. 안타도 홈경기에서 평균 7.6개를 때려낸 것에 비해 원정길에 나서서는 경기당 평균

10.57개의 안타를 만들어냈다. 병살타도 홈에서는 26개(평균 1.04), 원정에서는 19개(0.90)를 기록했다. 홈 부진에도 무등경기장 관중석은 가득 차고 있다. 지난 주말 LG와의 3연전에서 한 차례 매진(1만2500명)이 이뤄졌고, 무기력한 2연패에도 불구하고 2일 경기에도 1만103명이 관중석을 지켰다. 올 시즌 25경기의 누적 관객은 25만4055명. 10경기에 만원 관중이 찾았고 경기당 평균 관객은 1만165명에 달하는 등 KIA를 향한 홈팬들의 열정은 뜨겁다. 선동열 감독과 구단 관계자들은 “집에서 아바 역할을 해야 하고 홈에서는 신경 쓸게 많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런 제약에도 한참 아쉬운 성적이다. 롯데·넥센을 상대하기 위해 원정길에 오른 KIA는 오는 11일 안방으로 돌아와 NC·SK와 홈 6연전을 치른다. 오는 14일에는 2011년 이후 2년 만에 ‘검정과 빨강’의 울드 유니폼을 입고 홈팬들 앞에 선다. 홈팬들은 KIA가 원정 6연전으로 분위기 쇄신을 하고 시원한 승부로 ‘홈 징크스’를 날리기를 바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 대회, 코리안 돌풍 불까



PGA 13일 개막 US오픈 최경주·배상문 등 한국선수 5명 출전

13일 개막하는 시즌 두번째 메이저골프대회 US오픈에 한국국적 선수 5명이 출전한다. 하루동안 36홀을 도는 이날 예선에서 배상문은 8언더파 136타를 쳐 공동 9위에 오른 10명과 연장전을 치렀다. 배상문은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두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US오픈 티켓을 거머쥐었다. 위창수(43·테일러메이드)도 배상문과 함께 연장전을 치렀으나 두번째 홀에서 보기를 해야 할까 탈락했다. 배상문은 지난달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지만 이후 2개 대회에서 부진, 세계랭킹이 76위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세계랭킹 60위까지 주는 US오픈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 예선에 도전, 기어코 출전권을 따냈다. 한편 US오픈은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아드모어의 메리언 골프장에서 개막한다. /연합뉴스



LPGA 7일 개막 '챔피언십' 신지애·박인비 등 시즌 6승 도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를 휘젓는 코리안 남자 군단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에 총출동해 시즌 6승 달성에 도전한다. 이 대회는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오픈, 에비앙 마스터스대회와 더불어 5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다. 박세리(36·KDB 금융그룹)가 1998·2002·2006년 세 차례나 우승을 차지해 한국팬에게 익숙한 대회이기도 하다. 우승상금은 33만 5000달러(약 3억8000만원)로 나비스코 대회(30만 달러)보다 많다.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534야드)에서 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 대회에 세계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를 필두로 올해 호주오픈 우승자 신지애(25·미래에셋), 퓨어일크 바하마 오픈 챔피언 이일희(25·볼빅) 등 투어 대회 우승자와 최나연(26·SK텔레콤), 박세리, 뉴질랜드 교포로 아마추어 최강인 리디아 고(16) 등이 출전해 태극기를 휘날릴 전망이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은 박인비(3승), 신지애·이일희(1승)를 앞세워 총 5승을 거뒀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통산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등 시즌 3승을 수확한 박인비는 세계랭킹 1위와 상금 1위를 지키고자 이번 대회에서 다시 힘을 낼 작정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 포함 생애 첫 우승을 바라며서도 일교차 2일 끝난 슬림타이트클래스 대회에서의 컷 탈락 부진을 딛고 메이저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인비, 이일희와 1988년생 동갑으로 LPGA 투어에서 11승을 챙긴 신지애도 기저개를 건다. 2008년과 2012년 브리티시 오픈에서 두 차례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신지애는 올해 LPGA 선수 중 드라이버 정확도에서 1위(85.1%), 평균 타수 2위(70.23)에서 2위를 달리는 신지애가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릴 찬스를 맞았다. 지난해 11월 CME 그룹 타이틀홀더에서 챔피언에 오른 뒤 아직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최나연은 작년 US여자오픈 우승의 감을 살려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 타이틀 사냥에 나선다. 한국 군단에 맞서 카리 웨브(호주), 쟁야니(대만), 디펜딩 챔피언 평산산(중국) 등이 반격에 나선다. /연합뉴스

'불멸의 투수' 최동원 동상 9월 14일 제막



(사)최동원 기념사업회와 부산 미술협회는 최동원 동상·부속시설 제작자 공모를 통해 부산의 중견 조각가 박순곤(46) 씨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조건부 결정했다. 동상은 오는 9월 14일 고(故) 최동원 투수 2주기에 맞춰 부산 사직야구장 입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원의 적토마' 김은선 K리그 챌린지 MVP

루시오·김호남·임하람 베스트 11
 광주FC 5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원의 적토마’ 광주 FC 김은선이 주간 MVP에 선정됐다. 광주 미드필더 김은선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4일 발표한 K리그 챌린지 11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다.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주도한 공격수 루시오·김호남과 수비수 임하람도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광주는 겹경사를 맞았다. 김은선은 ‘골 장면서 빛났던 로빙샷, 더욱 빛났던 경기 조율과 침투 능력’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김은선은 지난 1일 수원 FC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0분 루시오의 패스를 받아 로빙샷을 선보이며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다. 김은선은 김호남의 결승골까지 도우며 이날 승리의 주역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격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루시오도 두 경기 연속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매서운 움직임과 묵직한 중거리 슈팅으로 광주에 녹아들고 있는 루시오는 ‘감각적인 침투패스로 선제골을 돕는 등 최근 팀 상승세의 중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범규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호남도 과감한 돌파와 크로스, 적극적인 플레이로 측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김호남은 1-1로 맞선 후반 28분 날린 슈팅으로 프로에서의 첫 골이자 값진 결승골을 기록하며 베스트 11이 됐다. 광주 진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수비수 임하람은 “제공권을 장악했고, 노련한 수비 리딩으로 상대 공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 시즌 세 번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독일 국제대회 우승

김영건 휠체어 부분 MVP

체코·러시아 연합팀을 3-1로 누르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5월 28일~6월 2일까지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김영건(4체급)선수 개인전에서 프랑스의 토마스를 3-0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도 김영건은 김정길과 조를 이뤄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연합팀을 3-0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대표팀 김공용 감독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쿼터 확보의 유리한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 3월 전국 최초로 선수단 6명(감독1, 코치1, 선수4)으로 장애인 탁구실업팀을 창단·운영하고 있다. /송기봉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시청 소속 장애인 탁구팀이 최근 독일 바이로이트와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2013 국제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가해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개인단식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은 독일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휠체어 부분 남자 MVP 선수로 선정됐다. 김영건은 지난 5월 21~26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대회 4체급 개인전 결승에서 최일상(대구시청)을 3-2로 역전시키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길(4체급)과 김공용(2체급)은 개인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4체급 단체전에서 김영건·김정길 조는 터키팀을 3-2로, 2체급 김공용·김민규 조는